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 성과와 과제

양 성 혁*

목 차

- I. 머리말
- II.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의 변화
- III. 즐문토기의 지역권 설정 및 편년체계 수립
 - 1. 남부지역
 - 2. 중부지역
 - 3. 서북지역
 - 4. 동북지역
- IV. 토기 형식 및 양식 설정
- V. 토기 연구의 향후 방향성
 - 땃음말을 대신하여

* 국립중앙박물관

국문요약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이 처음 알려진 지 근 100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신석기시대 연구는 괄목상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토기 분야 연구는 신석기문화 연구의 중심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 연구사에서 논의되었던 토기 연구 성과의 검토를 통해 지난 100년 간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의 성과를 1)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의 변화, 2) 즐문토기의 지역권 설정과 편년 체계 수립 3) 토기 형식 및 양식 설정에 두고 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선후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막연히 석기시대의 유물로 평가받았던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은 광복 후 남북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신석기시대=즐문토기’, ‘청동기시대=무문토기’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즐문토기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각 지역별 유적조사의 증가와 함께 즐문토기에 대한 지역권이 설정되었으며, 지역권별로 세부편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토기의 형식과 양식이 설정되면서 토기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시간적·공간적 위치가 확정되고, 문화 양상의 실체가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선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토기 연구가 형식학적 방법에 의한 편년 연구에 치중되고, 그 검증 절차 역시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미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연구의 논증 절차 강화와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Ⅰ 주제어Ⅰ

즐문토기, 시대인식, 지역권, 편년, 형식, 양식

I. 머리말

고고학 연구에 있어 토기는 어떤 고고학 자료보다도 풍부하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하기에 어느 지역에서나 만들어졌으며, 보존상태도 석기를 제외한 다른 자료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편이다. 토기는 깨지기 쉽다는 물리적 특성상 다른 도구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제작되고 소비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함께 토기는 흙을 빚어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당시의 해당 집단의 기호와 유형이 반영된다. 그 결과 다른 고고학 자료에 비해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과정과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인정된다. 또한 토기는 일반적으로 식량의 저장과 조리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덤의 부장품으로서, 때로는 집단 간 교류의 징표로서, 때로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등 다양한 인간 행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고고학자에게 있어 토기는 고고학적 해석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동삼동패총전시관 2004; 칼라 시노폴리(이성주 역) 2008).

인류 역사상 토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던¹⁾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 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고고학에 있어 신석기시대 연구는 토기를 중심²⁾으로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 토기는 편년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밝히는 주요한 도구이다. 또한 토기는 지역적 특성을 살피고 지역 간 교류를 증명한다. 최근에는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는 곧 토기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석기시대 연구에 토기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고고학 자료보다 많은 양과 다양한 형태와 무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1916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유적을 소개한 것을 신석기문화 연구의 시작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는 100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약 400여 개소에 이르던 신석기시대 유적 수(한영희 1995)는 현

1) 동아시아의 경우, 플라이스토세 말에 이미 토기가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나 토기가 일반적으로 제작 사용된 시점은 빙하기가 끝나고 시작된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2) 『한국고고학보』의 경우, 1집부터 최근의 96집까지 실린 신석기시대 관련 논문은 총 60편으로 그 중 토기 관련 논문은 19편(약 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신석기연구』의 경우, 1집부터 최근의 29집까지 총 172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유적조사개보 성격의 글(53편)을 제외하면 토기 관련 논문이 41편(약 24%)으로 가장 많다. 『한국고고학보』와 『한국신석기연구』에 실린 논문에는 토기를 비롯해, 석기, 골각기, 동물유체, 식물유체, 농경, 주거지, 무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토기를 주제로 한 논문을 제외하고 전체 10%를 넘는 주제는 없다.

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다. 증가한 유적 수에 비례하여 관련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³⁾. 대체로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거나 분기를 설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연구가 토기 중심이라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연구사 역시 토기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본고는 그간 연구사에서 논의 되었던 토기 연구 성과의 검토를 통해 지난 100년 간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의 성과를 1)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의 변화, 2) 즐문토기의 지역권 설정과 편년체계 수립 3) 토기 형식 및 양식 설정에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나름대로 앞으로 토기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의 변화

주지하다시피 신석기시대 토기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도리이 류쵸에 의해서이다(鳥居龍藏 1917). 그는 1916년 실시된 평안남도과 황해도 일대의 고적조사에서 몽금포 패총, 용반리 패총 등 신석기시대 유적을 확인하였다. 도리이는 유사 이전의 토기를 지리적 분포에 따라 산지대의 박수무문토기(薄手無文土器)와 해안지대의 후수유문토기(厚手有文土器)로 구분하였다. 도리이는 두 종류의 토기를 동일인종으로 생활양식을 달리한 집단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보고 산지대의 박수무문토기는 사냥하던 사람들이, 해안지대의 후수유문토기는 물고기를 주로 잡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양자 간 선 후관계에 대한 고찰이 없었으며 신석기시대라는 개념도 없었다.

3) 연구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영화, 1981, 「신석기시대」, 『한국사론』 I.

김원용, 1982, 「한국 고고학의 발전—구석기·신석기시대 연구」, 『동이문화』 20.

안승모, 1988,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보』 21, 한국고고학회.

이성주, 1992, 「신석기시대」, 『한국 선사고고학사—연구현황과 전망』 (까지).

신숙정, 1993,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경향—1945년까지」, 『한국상고사학고』 12, 한국상고사학회.

한영희, 1995,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한국고고학회.

안승모, 2002, 「신석기시대」, 『한국의 학술연구—고고학(남한 선사시대)』, 대한민국학술원.

임상택, 2005, 「신석기시대의 최근 조사 성과와 연구 흐름」, 『한국 고고학의 최근성과와 과제』, 한국 선사고고학회.

신숙정, 2008,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신석기연구』 15, 한국신석기학회.

신숙정, 2011,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현재 사용되는 빗살무늬토기, 즉 즐문토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이다. 후지타 료사쿠는 도리이가 후수유문토기라 불렀던 토기를 즐목문토기라 칭했다. 즐목문토기는 독일 학자들이 분류한 북방유라시아지역의 캄 케라믹(Kamm keramik)의 번역어로, 후지타는 즐목문토기를 ‘마른 면에 빗 모양의 것으로 토기를 굽어서 무늬를 만들어 소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북방문화의 파급으로 보았다. 후지타는 한반도 석기시대의 토기를 후수무문토기, 박수즐목문토기, 단도마연토기 및 채색토기, 신라소식토기(新羅燒式土器)로 구분하고, 후수무문토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며 금석병용기까지 사용되었고, 박수즐목문토기는 신석기시대의 토기로 보았다. 또한 그는 즐목문토기가 전국적으로 바닷가와 강가에 많은데 이는 도리이의 말처럼 생활양식 차이의 결과가 아니라 즐목문토기 제작 민족이 바다와 강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바다와 강을 따라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보았다(藤田亮策 1930). 후지타 역시 즐목문토기와 무문토기의 시기차이를 알지 못했으며, 두 토기 간 차이를 지역 차이로 파악하였다. 후지타가 명명한 ‘즐목문토기’는 ‘즐문토기’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토기 분류와 인식 및 북방문화설 역시 이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안승모 1988; 이성주 1992; 신숙정 1993).

요코야마 쇼사부로(横山將三郎)는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해 이전의 도리이나 후지타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1930년에서 1932년까지 2차에 걸친 부산 동삼동 패총 발굴조사의 보고서(横山將三郎 1933)에서 그는 한반도 석기시대 토기를 무늬와 손잡이의 유무에 따라 무문의 제1식과 유문의 제2식으로 구분하였다. 제1식 토기와 제2식 토기의 분포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도리이나 후지타의 견해처럼 인종적 차이 혹은 생활양식의 차이, 전파 경로의 차이가 아닌 문화단계의 차이로 이해하였다. 제2식 토기를 함경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선문화군(北鮮文化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선문화군(男鮮文化群), 평안남도·황해도·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선문화군(西鮮文化群)으로 구분하고, 지역적 차이는 문화단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제1식 토기를 야요이 토기와, 제2식 토기를 조몬 토기와 각각 비교하였으며, 제2식 토기는 해류를 따라 연해주로부터 내려와 동해안을 돌아 남선을 거쳐 서선으로 올라갔다고 보았다. 요코야마는 동삼동 패총 출토 토기를 5개의 군으로 나누고 다시 점, 선분, 호선 등의 아군으로 나누는 등 형식분류를 시도하였으며, 함께 출토된 펜석기와 간석기를 고려하여 동삼동 패총을 전기와 후기 2기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인근의 영선동 단계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즐문토기에 대한 최초의 시기구분으로 평가된다(신숙정 1993). 요코야마의 견해 중

주목되는 것은 제1식 토기, 무문토기에 대한 정의이다. 그는 무늬가 없는 토기라고 모두 무문토기로 분류하면, 유문토기의 무늬 없는 부분과 혼동되기 때문에, 무늬가 없고 납작 밑에 손잡이가 있는 것만을 무문토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무문토기를 야요이 토기와, 유문토기를 조몬 토기와 관련지었으면서도 양자 간의 선후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이성주 1992; 신숙정 1993).

일제강점기의 일인 관학자들의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한 입장은 이성주(1992)와 신숙정(1993)이 지적한대로, 제국주의 입장에서 ‘일선동조동원론’을 증명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출토 양의 적다는 자료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일인 관학자들은 한반도 선사문화가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문화라기보다는 한반도는 대륙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해주는 교량 역할만 할 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 경향은 계통론으로 귀결되었으며, 인종 혹은 주민집단, 문화의 기원지, 전파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토기의 분류나 편년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지타나 요코야마 등이 즐목문토기를 조몬 토기와, 무문토기를 야요이 토기와 관련지었으면서도 두 토기 간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무심할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역시 신숙정(1993)의 지적처럼 그들은 즐문토기와 무문토기의 발달과정을 밝혀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지 모른다. 한반도 선사문화가 독창적인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순차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한 ‘금석병용기설’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한홍수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관학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한반도 석기시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점이 주목된다. 그는 조선의 석기문화를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한홍수 1936). 당시의 자료로는 구석기시대를 확증할 수 없지만, 한반도 선사시대 문화를 보편적 인류발전과정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유물사관에서 비롯된 것(신숙정 1993)이지만, 광복 이후 한국고고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광복 후 한국 고고학의 과제 중 하나가 식민사관의 극복이었다. 그중 일본 관학자들이 설정한 ‘금석병용기설’은 한반도의 선사시대가 보편적 인류문화발전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파행적이고 정체되어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광복 후 남북한 학자 모두 청동기시대를 확립하고 신석기시대의 독자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 평양 금탄리 유적에서 퇴적 층위와 주거지 및 출토 유물을 대비하여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을 구분하였다(김용간 1964). 이와 함께 신석기시대의 연대를 설정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 주거지 유적인

궁산리 유적 보고서(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57)에서 황기덕과 도유호는 궁산리 유적의 연대를 소련의 토기와 관련시켜 기원전 1500년 이전까지 연대를 추정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즐문토기의 연대를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성주 1992). 이후 도유호는 북한 지역의 빗살무늬그릇을 북유라시아에 분포하는 캄 케라믹의 한 갈래로 궁산 문화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2,000년기 전반, 하한연대를 기원전 2,000년기 말로 보았다(도유호 1958, 1960). 이와 비슷한 시기에 김원룡은 그동안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선사시대 체계 안에서 신석기시대를 서술하였다(김원룡 1964). 그는 이전까지 석기시대로 통칭되었던 선사시대를 구석기시대-(중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나누었다. 그는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중국, 일본의 신석기시대와 비교하여 기원전 3,000~2,000년까지 올라가며, 즐문토기는 북구의 것과 같은 계통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를 함경북도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함경북도 지역의 즐문토기가 퇴화형이라는 점에서 시베리아 즐문토기가 서해안으로 먼저 들어와 해안을 따라 동북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살펴봤듯이, 선후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막연히 석기시대의 유물로 평가받았던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은 광복 후 남북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신석기시대=즐문토기’, ‘청동기시대=무문토기’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즐문토기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각 지역별 유적조사의 증가와 함께 즐문토기에 대한 지역별로 세부편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된다.

Ⅲ. 즐문토기의 지역권 설정 및 편년체계 수립

즐문토기의 지역 구분은 이미 앞선 연구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즐문토기의 지역적 특징을 정리한 것은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수집된 즐문토기를 비롯하여 당시 남한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역의 즐문토기 자료를 집대성하였다(有光敎一 1962). 그는 한반도를 중선(中鮮), 서선(西鮮), 북선(北鮮), 남선(南鮮)으로 구분하였다. 중선은 주로 한강 중·하류역과 경기도 연안의 도서 지역, 강원 영서 지역이며, 서선은 대동강 유역의 황해도, 평안남·북도 지역이다. 북선은 함경남·북도의 두만강 유역과 동해안 지역이며, 남선은 동남해안과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전라남·북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관행적인 지리적 구분에

따른 것이지만, 동일한 범주의 즐문토기라도 각 지역마다 형태와 무늬에서 특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리미쓰의 지역 구분은 이후 신석기시대 지역 구분의 기본적인 틀로 유지되고 있다(안승모 2009).

사토 다쓰오(佐藤達夫)는 각 도별로 지역군을 설정하고 각 지역군 내에서 즐문토기의 형식 변화에 기초한 계통적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佐藤達夫 1963). 사토는 한반도 내 각 지역의 즐문토기는 각각 계통적으로 변천하면서 동시에 각 시기에 있어서 각 지역 사이에 공통되는 특징이 보인다는 전제 아래 즐문토기의 편년을 체계화 하였다. 그의 편년 방식은 즐문토기의 무늬 요소와 시문 방법의 변천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층위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 신석기시대 편년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이성주 1992). 이러한 일련의 즐문토기의 지역권 설정⁴⁾ 이후 서포항 유적, 동삼동 패총, 시도 패총, 암사동 유적, 오산리 유적 등이 발굴조사되면서 각 지역권 별로 즐문토기의 편년체계가 수립되어 갔다.

1. 남부지역

일반적으로 남부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일컫는다. 남부지역은 낙동강 하류 및 동해안지역의 동남부지역, 섬진강 유역과 주변 도서지역의 중남부지역, 소백산맥 서쪽의 서남부지역 등 소지역군으로 세분된다(田中聰一 2000).

남부지역 즐문토기의 편년 작업은 요코야마가 동삼동 패총에서 영선동 패총으로 발달한 것으로 본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이후 아리미쓰와 사토는 이 지역 즐문토기의 편년안을 형식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아리미쓰는 태선침선문토기가 압인문토기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았으며(有光教一 1962), 사토는 남부지역 즐문토기를 4류로 구분하고 태선침선문토기(1류)→압인문토기(2류)→용기문토기(3류)·무문양토기(4류) 순의 편년안을 제시하였다(佐藤達夫 1963).

이러한 남부지역 즐문토기의 편년체계는 모아(A. More)와 샘플(L. L. Sample)에 의

4) 이밖에도 한반도 즐문토기의 지역군 설정과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안승모, 2009 재인용).

김정학, 1972,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新社).

김원용,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한병삼, 1979, 「櫛目文土器」, 『世界陶磁全集』 17 (小學館).

김정학, 1980, 「幾何文(櫛文)土器の編年」, 『考古學ジャーナル』 183.

임효재, 1983, 「토기의 시대적 변천과정」,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한영희, 1983, 「지역적 비교」,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해 부정된다. 모아와 샘플은 동삼동 패총 결과를 바탕으로 남부지역의 즐문토기를 용기문토기와 무문양토기 중심의 조도기 → 지두문토기 중심의 목도기 → 압인문토기 중심의 부산기 → 침선문토기 중심의 두도기 → 이중구연토기 중심의 영도기 순의 편년안을 제시하였다(L. L. Sample 1974). 이들의 편년안은 기존의 편년안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모아와 샘플의 견해는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삼동 패총 발굴 결과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최종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늬 요소보다는 시문기법에 우위를 둔 편년안을 제시하였다(최종규 1977). 그는 남부지역 즐문토기가 용기문토기→압인문토기→침선문토기→지두문토기→울리식토기(이중구연토기)의 순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현재 남부지역 즐문토기 편년의 기초가 되는 김해 수가리 패총 발굴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김해 수가리 패총 발굴 보고자들은 최종규의 편년안과 동삼동 패총을 비롯한 당시까지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즐문토기의 무늬 형태, 시문 방식 등 형식학적 방법을 이용해 남부지역 즐문토기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용기문토기 중심의 초기, 압인문토기 중심의 전기, 수가리 I 식토기(태선침선문토기) 중심의 중기, 수가리 II 식토기(퇴화침선문토기) 중심의 후기, 수가리 III 식토기(이중구연토기) 중심의 만기라는 편년체계는 이후 남부지역 즐문토기 편년의 기본 틀이 되었다.

동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즐문토기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합천댐, 남강댐,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남부지역 내부에서도 소지역군에 대한 인식이 등장한다(안승모 2009). 남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후기 단계에 봉계리식토기가 추가되면서 남부 내륙의 독자성이 부각되었다(이동주 1991). 이후 청도 오진리 유적에서 오진리식토기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고산리식토기가 확인됨에 따라 한반도 신석기문화가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와 공통된 특징을 보임에 따라 초창기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다(임효재 1997; 하인수 2006).

한편 초창기를 제외한 남부지역 5단계의 편년안에 대해서 각 토기 형식 간 상대순서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편년 내용을 조정하여 3~4단계로 수정하는 편년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⁵⁾. 이들 편년안은 기존의 초기와 전기, 후기와 만기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5)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하인수 200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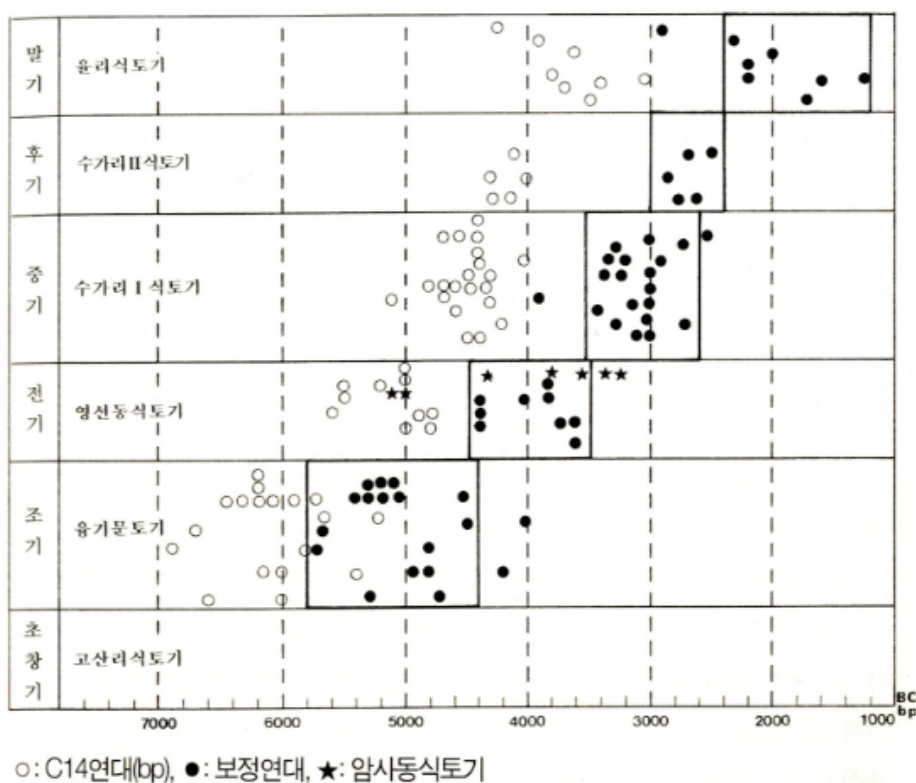
廣瀨雄一, 1989a, 「韓國南部地方櫛目文後期の變遷」, 『九州考古學』 64.

廣瀨雄一, 1989b, 「韓國嶺南地方櫛文土器前期の土器變遷」, 『考古學の世界』 (新人物往來社).

송은숙, 1991, 「한국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에 대해 하인수는 기존 편년체계를 보완하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의 5단계 편년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남부지역 각 유적의 방사상탄소연대 측정값을 감안하고, 고산리식토기와 오진리식토기를 초창기로 보는 6단계 편년안을 제시하였다(하인수 2006)⁶⁾. 또한 그는 최근 발굴된 울진 죽변리 유적에서 출토된 죽변리식토기를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인수 2013).

표 1. 남부지역 줄문토기 형식별 방사성탄소연대 분포도(하인수 2006)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이동주, 199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종혁, 2000,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 토기편년에 대한 검토」, 『고고역사학지』 16.

田中聰一, 2001, 「한반도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승모, 2002, 「신석기시대」, 『한국의 학술연구-고고학(남한 선사시대)』, 대한민국학술원.

6) 이동주는 오진리식토기를 전기로 편년하고 있다(이동주 2011).

표 2. 남부지역 즐문토기 편년표(하인수 2006)

시기	초창기 B.C. 12000	조기 B.C. 6000	전기 B.C. 4500	중기 B.C. 3500	후기 B.C. 2700	말기 B.C. 2000
형식	· 고산리식 · 오진리식	· 용기문토기	· 영선동식 (지돌압인문토기)	· 수가리 I 식 (태산침선문토기)	· 수가리 II 식 · 봉계리식	· 수가리 III 식 · 율리식토기
유적	· 고산리유적 · 오진리유적 · 성하동유적	· 동삼동패총 (8·9층) · 세죽패총 · 범방패총 (I·II기층) · 우봉리	· 영선동패총 · 목도패총 · 동삼동3호주 · 범방유적6층 · 살내유적	· 수가리 I 기층 · 동삼동1호주 · 범방H피트 · 신암리 II · 갈머리주거지 · 진그늘주거지	· 수가리 II 기층 · 동삼동패총 (3·4층) · 봉계리유적 · 목도2층	· 율리패총 · 동삼동패총 (2층) · 범방패총(2층)

2. 중부지역

일반적으로 중부지역은 행정구역상 평안남도, 황해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이 해당된다. 중부지역은 대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 서해안 지역의 중서부지역과 강원 동해안지역으로 세분된다⁷⁾.

중서부지역 즐문토기의 편년체계는 층위를 이룬 유적이 적은 관계로 층위학적 증거보다는 토기 무늬 중심의 형식학적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체로 토기 형식에서는 구분계토기에서 동일계토기로, 시문방법에서는 전면시문에서 부분 시문 및 무늬의 단순화·난삽화 경향을 보인다.

중서부지역 즐문토기의 편년 작업은 대동강 유역의 ‘궁산문화’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에서는 대동강 유역의 궁산리, 지탑리, 금탄리 등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첨저 장란형의 즐문토기를 표지유물로 하는 대동강 유역의 신석기문화를 ‘궁산문화’로 일컫고 이 지역 즐문토기 편년하였다(도유호 1958, 1960). 임효재는 중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을 지역적 분포에 따라 서해안 패총 지역, 한강 중류 주거지 지역, 동해안 유물 포함층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였다(임효재 1977). 그는 이들 지역 유적 간 성격 차이는 지리적, 생태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보고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토기에도 반영된다고 보았다.

중서부지역 즐문토기의 편년체계의 골격은 한영희와 임효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영희는 중서부지역의 즐문토기의 모든 무늬 요소를 고려하면서 시문 부위와 무늬 요소의

7) 충청 내륙지역인 둔산과 쌍청리는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접이지대로 보인다(안승모 2009).

조합별로 형식을 구분하고 각 토기 간 편년을 시도하였다(한영희 1978). 임효재는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를 크게 구분계토기와 동일계토기로 나누고 각 토기 바닥부터 무늬가 생략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각 시기의 대표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비교하여 변천의 타당성을 높였다(임효재 1983a, 1983b).

임상택은 기존의 한영희 편년안을 바탕으로 이 지역 즐문토기의 편년체계를 구체화시켰다(임상택 1999, 2008). 그는 중서부지역의 즐문토기 편년을 대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엄격한 구분계 3부위 시문토기 중심의 I기, 금탄리1식토기 및 다양한 기면 분할 방식, 동일계 토기 등장을 II기, 구분계토기 쇠퇴, 금탄리2식토기 및 서해안식토기 유행의 III기, 서해안식토기의 문양 단순화 및 난삽화를 특징으로 하는 IV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각 유적에서 확인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대입하여 각 시기별 절대연대 폭을 설정하였다⁸⁾.

표 3. 중서부지역 상대편년(임상택 2008)

분 기		주요 특징	주요 유적	절대연대(B.C.)
I 기	전반	구분계 3부위 시문	지탑리 I 지구 1호, 공산	4000 ~ 3600
	후반	구분계문양 유지, 동체부 타래문, 중호문, 점열어골문	지탑리 II 지구, 마산리, 룡곡 2호, 까치산 I 패총 하층, 삼거리, 암사동, 미사리	
II 기		금탄리1식, 2부위 시문, 구연한정시문, 동일계 토기 등장	금탄리1문화층, 암사동, 미사리, 주월리, 삼목주거지, 오이도 작은소라벌A, 가운데살막, 대부도 홀곶패총, 조동리, 관산리, 가도 등	3600 ~ 3000
III 기		금탄리2식, 서해안식 동일계 토기 유행, 구분계 토기 쇠퇴·소멸	금탄리2문화층, 남경, 표대, 송산, 는들, 소연평도, 남북동, 풍기동, 오이도 신포동, 원정리, 관창리, 성정리, 내흥동, 내평, 역내리, 둔산, 대천리, 쌍청리 등	3000 ~ 2500
IV 기		문양 단순화, 난삽화	용반리, 덕안리, 남산, 군량리, 제일리, 꽃뫼, 모이도, 을왕동 I, 오이도 뒷살막	2500 ~ 1500

8) 이에 김장석과 양성혁은 중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금탄리1식토기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서해안식 토기의 절대연대가 계속 올라가며, 암사동2식토기의 연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시기의 토기의 다양성 및 지역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중서부지역을 전기와 후기 2시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김장석·양성혁 2001; 김장석 2003).

중부 동해안 즐문토기의 편년은 오산리 유적, 지경리 유적, 가평리 유적, 문암리 유적의 발굴성과에 의해 큰 틀이 마련되었다. 김장석은 오산리 유적이 위치한 사구의 특성상 층위가 시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식학적 관점에서 용기문토기-오산리식토기-구분계토기 순으로 보았다(김장석 1991). 지경리 유적과 가평리 유적이 발굴되면서 중기 이후 이 지역의 즐문토기 양상이 밝혀졌다. 임상택은 중서부지역의 전기 말, 중기 초에 암사동식 토기가 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구연부에 집선문이 시문되는 남부지역의 태선침선문토기가 들어온 것으로 보았다(임상택 2001). 이후 문암리 유적과 오산리C지구의 발굴성과가 알려지면서 문암리 최하층 무문양토기와 오산리C지구 최하층의 오산리식토기가 용기문토기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영 2007; 고동순 2009). 고성 철통리 유적과 강릉 지변동 유적에서 구연부에 사선대문과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어 이 지역 즐문토기의 후기 양상을 보여준다(고동순 2009).

3. 서북지역

서북지역은 지리적으로 압록강 양안 지역과 청천강 이북 지역 및 그 해안지역이 해당된다. 서북지역 즐문토기에 대한 연구는 황기덕(1958), 도유호(1960)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토기에 대한 본격적인 편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미송리 유적, 장성리 유적, 토성리 유적, 세죽리 유적, 신암리 유적 등이 조사되면서 이 지역 즐문토기의 양상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리병선은 지자문, 횡주어골문의 유무, 호형토기의 유무, 태토의 변화 청동기시대 토기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미송리-토성리·장성리-쌍학리·신암리’ 순으로 편년하였다(리병선 1965). 김용간은 그의 궁산문화 편년관을 바탕으로 압록강 유역의 유적들을 ‘미송리 하층-당산-세죽리 집자리 외 문화층-청등말래·쌍학리·도봉리’ 순으로 편년하였다(김용간 1978). 리병선과 김용간의 편년안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즐문토기를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로 보았다.

이후 당산 유적, 반궁리 유적의 발굴성과와 압록강 대안의 중국 동북지역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즐문토기 편년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신락 유적, 소주산 유적, 후와 유적 등의 최하층에서 지자문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미송리 유적, 세죽리 유적 등의 지자문토기 역시 이들과 같은 시기로 보게 되었다. 김종혁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와 1기-후와 2기-신암리 1기-신암리 2기’라는 압록강 유역 즐문토기의 기본 편년체계가 확립되었다(김종혁 1992, 1993). 이후 반궁리 유적 발굴보고자들은

반궁리 유적에서 번개무늬토기와 횡선침선문, 타래문이 보이고, 신암리 1기층에서 보이는 기하문과 굽다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궁리 유적을 후와 2기와 신암리 1기 사이에 위치시켰다(김동일 외 2003).

임상택은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즐문토기를 모두 1~7기까지 7단계로 편년하고 있다(임상택 2011). 우선 1기는 지자문토기로 대표되며 미송리 하층, 후와 하층이 여기에 속한다. 2기는 평저토기 전통 속에 지자문이 사라지고 횡침선문이 시문되는 침선문계토기가 발달한다. 반궁리, 후와 상층, 마성자 하층이 여기에 속한다. 3기는 횡주어골문과 격자문 등으로 대표되는 침선문계 토기가 발달한다. 평저토기가 여전히 보이지만 환저도 확인되고 있어 청천강 이남의 궁산문화와 관련성을 보여준다. 당산 하층이 여기에 속한다. 4기는 동체에 종방향의 점토띠를 붙인 이른 단계 편보 유형 토기가 유입된 시기로 당산 상층이 여기에 속한다. 5기에는 이중구연부 하단이 돌출되고 동체부에 다치구에 의한 찰과상 무늬가 시문되는 늦은 단계의 편보 유형 토기와 번개무늬토기가 확인된다. 쌍학리 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6기는 편보 유형 토기에서 벗어나 능형의 번개무늬와 W대문 등 기하학적 무늬가 복합적으로 새겨진 장경호가 대표적이다. 장경호의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에 각목한 점토띠를 한 줄 돌리는 것이 성행한다. 신암리 1기가 여기에 속한다. 7기는 번개무늬 중심의 기하학적 무늬가 사라지고 무문양토기가 증가한다. 점토띠 하단에 각목을 시문한 이중구연토기, 경부 하단에 횡침선을 돌린 호형토기, 손잡이를 부착한 토기 등이 존재한다. 신암리 2기(신암리 3지점 1문화층)가 여기에 속한다.

4. 동북지역

동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두만강 양안 지역과 그 해안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 즐문토기 연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일인 관학자에 의해서이다. 웅기 송평동 유적을 발굴조사한 후지타는 유적에서 출토된 철편을 근거로 한반도 석기시대가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藤田亮策 1930). 요코야마 쇼사부로도 이 지역의 즐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유판-원수대-송평동 순으로 상대편년안을 제시한 바 있다(橫山將三郎 1939).

광복 후 이 지역 즐문토기의 편년작업은 황기덕과 김용남에 의해 이루어졌다. 광복 직후의 황기덕은 뎨석기와 유문토기가 주류인 유적과 간석기와 무문토기가 주류인 유적을 구분하였으나 구체적인 편년은 하지 못했다(황기덕 1957a, 1957b). 다만 첨저의 궁산문화 빗살무늬 그릇보다 이 지역 유문토기가 늦을 것으로 보았다. 그후 층위 발굴이

이루어진 서포항 유적의 조사 성과와 검은개봉 유적, 농포 패총, 송평동 유적의 토기 기형과 무늬의 형식학적 검토 등을 통해 황기덕은 이 지역 즐문토기를 타래무늬시기(검은개봉)-번개무늬시기(농포)-덧무늬시기(송평동)의 상대편년안을 제시하였다(황기덕 1962). 또한 검은개봉의 타래무늬를 중국 양소기의 타래무늬와 비교하여 타래무늬시기를 기원전 3000년 전후라는 절대연대값을 제시하였다.

서포항 유적의 발굴성과는 이 지역 편년 수립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용남은 서포항 유적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이 지역 신석기시대를 5기로 나누었다(김용남 1967). 서포항 유적의 각 문화층은 패총의 층서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의 중복 관계로 파악된 것이다. 그는 각 문화층의 ‘문화종태(유물복합체)’를 상호 비교하여 이 지역 신석기시대를 1~5기 5단계로 구분하였다. 1기는 압날문토기를 대표로 한다. 2기는 짧은 선무늬, 전나무잎무늬, 가로 점줄무늬 등 침선문토기가 대표적이며, 기종도 다양해진다. 3기는 타래무늬토기를 대표로 한다. 들린 굽과 호형토기가 등장한다. 4기는 번개무늬그릇을 대표로 한다. 5기는 무늬가 단순해지고 무문양이 증가한다. 이러한 5단계의 시기 구분은 북한 신석기시대 편년의 기준이 된다.

김재운은 서포항 유적의 재검토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토기문화와 비교를 통해 압날문, 점선문, 승선문, 침선문 등 시문기법에 따라 토기를 나누고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를 유형화하여 4개의 유형으로 나눴다(김재운 2009). 압날문의 1유형을 서포항 하층 문화로 보고 보이즈만의 마지막 단계와 병행한다고 보았다. 2~4유형은 서포항 상층 문화로 자이사노프카문화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편년안은 기존의 서포항 편년과 상대순서상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2기 이후를 후기로 보는 것이 차이점이다.

임상택은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신석기시대를 서포항 1기-나진기-서포항 2기-서포항 3기-서포항 4기 순으로 편년하고 있다(임상택 2011). 기존의 서포항 5기는 청동기시대와의 과도기로 보고 있다.

IV. 토기 형식 및 양식 설정

형식과 양식은 고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자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적 용어다(하인수 2013). 앞서 살펴보았듯이, 즐문토기의 편년은 주변 지역과의 병행관계 혹은 각 유적에서 확인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대입하여 각 시기별 절대연

대 폭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토기 형식을 설정하고 각 토기의 형식 간 상대순서를 정하는 형식학적 방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고고학은 시대구분을 통한 구체적인 편년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막연히 석기시대로 불리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가 독자적인 시대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70년대 이후 한국고고학은 각 시대별 분기설정을 통해 세분된 전국 단위의 편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토기 형식을 표지유물로 설정하고, 이 유물들과 유사한 각지의 유물군을 유사한 시기로 설정하여 세부편년을 하였다(김장석 2014). 00식 토기, 00식 문화라는 형식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즐문토기 연구에서 처음으로 형식학적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사토 다쓰오이다. 그는 구체적인 토기형식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식분류의 위계에 따라 남부지역 즐문토기를 1~4류, 중서부지역의 즐문토기를 지탑리 1류, 2류 등 수리화한 형식명을 사용하였다(佐藤達夫 1963).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토기에 대해 유적명을 부여하는 형식명으로 사용한 것은 김정학이 처음이다. 김정학은 부산 울리 유적 출토 일군의 즐문토기를 ‘울리식토기’로 명명하였다(김정학 1972). 이후 최종규(1977), 정징원·신경철(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한영희(1978, 1983)에 의해 유적명을 부여하는 토기 형식이 설정하면서 신석기시대 토기 형식명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대표적인 토기 형식명으로 고산리식토기, 오진리식토기, 오산리식토기, 죽변리식토기, 동삼동식토기(우봉리식토기, 신암리식토기), 영선동식토기, 암사동식토기, 수가리식토기, 봉계리식토기, 쌍청리식토기(금강식토기), 서해안식토기(시도식토기), 봉계리식토기, 울리식토기(수가리Ⅲ식토기), 강상리식토기 등이다. 이러한 유적명 부여 토기 형식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부는 선언적 제안에 그치는 예도 있다.

이밖에도 무늬 형태와 시문기법 등 중심으로 용기문토기, 지두문토기, 자돌문토기, 압날문토기, 압인문토기, 침선문토기, 타래문토기, 번개무늬토기 등을 토기 형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토기의 속성 중 의미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속성 조합 및 상관관계를 통해 형식 간 상대서열을 I 식, II 식 등으로 정하는 수리화된 형식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학적 방법에 의한 편년작업에 대해 여러 비판도 있었으나⁹⁾, 즐문토기의

9) 이에 대한 내용은 김장석의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기 바란다(김장석 2014).

형식 연구는 한반도 즐문토기의 편년체제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편년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인수 2013).

최근 즐문토기 연구에 있어 양식 개념을 도입하여 즐문토기 문화의 성격과 편년, 지역적 전개 양상을 고찰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인수는 오산리식토기와 영선동식토기, 용기문토기를 토기 형식 개념만으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토기 양상과 전개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양식 개념을 도입하였다(하인수 1997, 2011, 2012). 임상택은 동·남해안 지역 초기 즐문토기를 기종 조성파와 무늬의 형식적인 특징을 고려해 오산리 양식 토기, 죽변 양식 토기, 동삼동 양식 토기 등 3개의 토기 양식을 설정하고, 이 지역 초기 단계 집단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임상택 2012)¹⁰⁾. 또한 영선동 양식 내륙 유형의 성립 과정을 고찰하였다(임상택 2015). 이러한 최근 토기 양식론적 연구 방법에 대해 하인수는 형식과 양식 개념 및 적용 방식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면서, 동일한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논지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하인수 2013).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용어의 개념 규정과 적용 방식에 대해 최소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즐문토기의 형식과 양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시도하였다.

V. 토기 연구의 향후 방향성 -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 성과를 즐문토기에 대한 시대 인식의 변화, 즐문토기의 지역권 설정과 편년체제 수립, 토기 형식 및 양식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해보았다. 이 밖에도 토기 형식 분류에 매달리지 않고 토기 용량에 따른 토기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임효재 · S. M. Nelson 1976), 태토의 물리화학적 분석을 기초로 토기제작 기술을 추정한 연구(신숙정 1982), 실험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신석기시대 토기 제작에 관한 연구(이기길 1988, 1994; 이기길 · 황성옥 1989; 이기길 외 1990; 임학중 · 이정근 2006; 임학중 2006; 홍은경 2008), 신석기시대 주철토기의 성분에 대한 분석(임학중 외 2000), 토기 가마에 대한 연구(배성혁 2007; 조대연 외 2010), 태토 분석을

10) 임상택은 토기에서 있어 ‘양식(樣式, style)’이란 기본적으로 기형과 무늬, 제작 방식 등의 모든 측면에서 공통 요소를 보이는 일군의 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양식 내 토기들은 기종에 상관없이 공통 요소로 인해 그 양식만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는 양식은 편년적 도구로서 시간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적 응집성, 문화적 연속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통한 토기 유통에 대한 연구(조대연 2014)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토기 연구는 편년 수립에 치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신석기시대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 특히 선사고고학 분야에서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다. 한반도 선사문화를 보편적 인류발전과정에서 파악하고 각 시대를 분기 별로 나눠 편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토기 연구가 편년 연구에 치중되어버린 점은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토기의 형식학에 의한 상대편년 방식은 여러 비판이 있었다(김장석 2014). 특히 김장석은 유물의 형태변이를 시간의 단위로 인식하는 형식학적 상대편년은 하나의 가설로 인정하고 검증은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생략되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행 편년안의 가정과 근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동일한 논리로 편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편년안의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검증절차로서 층서법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가설에 대한 검증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형식학적 상대편년 연구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토기의 형식학적 방법의 목적은 토기의 상대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현재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는 대표적인 토기 형식의 상대순서를 정하고 각 토기 형식이 출토되는 유적의 절대연대 측정값을 대입하여 토기 형식의 시간 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토기의 변화가 당시의 고고학적 문화 변동을 반영하느냐이다. 즉 토기 형식 간 상대순서는 인정하더라도 각 토기 형식이 사용되었던 시기 간 문화 양상 역시 변화가 보이느냐는 것이다. 만약 문화 양상의 변화가 간취되지 않는다면 과연 시기 구분의 의미가 있을까? 또한 동일시기에 시간차를 두는 다양한 토기 형식의 공존 가능성은 없을까? 결국 시기구분은 토기 형식 간 상대순서와 그 사용 시기보다는 석기·골각기 등 생산도구, 주거환경 등 유적의 입지, 무덤의 양상 등 물질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간취할 수 있을 때, 시기구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기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에 따른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토기 형식의 변화와 함께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상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시기구분은 유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기존 즐문토기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즐문토기 연구는 곧 편년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기의 기능, 토기 제작기술, 생산과 교환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로 과거 다양한 인간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도구이다. 토기를 통해

서 생산과 교환, 사회조직, 의례행위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아직 그 단계까지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태토 성분 분석, 토기 압흔 레프리카, 토기 잔존 유기화합물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의 도입을 통해 연구 주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방식은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 분석에 대한 훈련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 결과가 아니라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이다. 결국 고고학 자료와 당시 물질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가 없다면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간 즐문토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시간적·공간적 위치가 확정되고, 문화 양상의 실체가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선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미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연구의 논증 절차 강화와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57, 『궁산 원시 유적 발굴 보고』 (과학원출판사).
- 고동순, 2009,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패총전시관.
- 김동일·서국태·지화산·김종혁, 2003,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김용간, 1964,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용간, 1978,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질그릇 갖추새 변천의 특성」, 『역사과학』 1호.
- 김용남, 1967,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고고민속』 3호.
- 김원용, 1964, 「한국 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 문화사 대계』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은영, 2007, 「고성 문암리유적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평저토기문화의 전개」, 『문화재』 40.
- 김장석·양성혁, 2001,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 45.
- 김장석, 1991, 「오산리토기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장석, 2003,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5.
- 김장석, 2014,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 『한국상고사학보』 83.
- 김재윤, 2009, 「서포항유적의 신석기시대 편년 재고」, 『한국고고학보』 71.
- 김정학, 1972, 「幾何文土器文化」, 『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
- 김종혁, 1992, 「압록강 하류 일대 신석기시대 유적들의 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호.
- 김종혁, 1993, 「압록강 하류 일대 신석기시대 질그릇 갖추새 변천」, 『조선고고연구』 3호.
- 도유호, 1958, 「조선 원시 문화의 연대 추정을 위한 시도」, 『문화유산』 No. 3.
- 도유호, 1960, 『조선원시고고학』 (과학원출판사).
- 동삼동패총전시관, 2004,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리병선, 1965, 「압록강 류역 빗살무늬 그릇 유적들의 계승성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 2호.
- 배성혁, 2007, 「신석기시대의 토기요 연구-김천 송죽리 토기요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2.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 수가리패총』 I.
- 신숙정, 1982, 「상노대도 조개더미 유적의 질그릇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정, 1993,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경향-1945년까지」, 『한국상고사학보』 12.
- 신숙정, 2008,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신석기연구』 15.
- 신숙정, 2011,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안승모, 1988,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보』 21.
- 안승모, 2002, 「신석기시대」, 『한국의 학술연구-고고학(남한 선사시대)』, 대한민국학술원.
- 안승모, 2009, 「신석기시대 지역성과 지역 분류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 문화론』, 동삼동패총전시관.

- 이기길, 1988, 「암사동(바윗절) 유적의 신석기시대 뽕족밑무늬토기의 연구」, 『손보기 박사 정년 기념 고고인류학 논총』 (지식산업사).
- 이기길, 1994, 「한국 신석기시대 질그릇의 제작 기술」, 『한국상고사학보』 16.
- 이기길·황성옥, 1989,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덧문지른무늬토기의 연구 I」, 『고문화』 34.
- 이기길·이윤수·이종석, 1990,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덧문지른무늬토기의 연구 II」, 『고문화』 36.
- 이성주, 1992, 「신석기시대」, 『한국 선사고고학사—연구현황과 전망』 (까지).
- 이동주, 1991, 「한국 남부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문토기연구」, 『한국상고사학보』 7.
- 이동주, 2011, 「남부지역의 토기문화」,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 임상택, 1999, 「서해 중부지역 빗살무늬토기 편년연구」, 『한국고고학보』 40.
- 임상택, 2001,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지역적 전개」, 『한국신석기연구』 1.
- 임상택, 2005, 「신석기시대의 최근 조사 성과와 연구 흐름」, 『한국 고고학의 최근성과와 과제』, 한국선사고고학회.
- 임상택,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 임상택, 2011, 「북부지역의 토기문화」,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 임상택, 2012, 「동·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 토기 양식」, 『한국신석기연구』 24.
- 임상택, 2015, 「남부 내륙 지역 신석기시대 전기 토기 검토—영선동 양식 내륙 유형의 설정과 의미—」, 『한국신석기연구』 29.
- 임학중, 2006, 「즐문토기의 도치성형」, 『석헌정장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논총발행위원회.
- 임학중, 2011, 「토기의 제작과 기능」,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 임학중·유혜선·장성윤, 2000, 「신석기시대 주칠토기의 과학적 분석」, 『고고학지』 11.
- 임학중·이정근, 2006, 「선사토기 제작실험」, 『한·일 신시대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九州考古學會.
- 임효재, 1977, 「한국 중부지방 신석기문화의 상사성과 상이성 연구」, 『한국고고학보』 2.
- 임효재, 1983a, 「편년」, 『한국사론』 12.
- 임효재, 1983b, 「토기의 시대적 변천과정」, 『한국사론』 12.
- 임효재, 1997, 「신석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사』 2.
- 임효재·S. M. Nelson, 1976, 「한강 유역 즐문토기의 용량 추출과 그 문화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1.
- 田中聰一, 2000, 「한반도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화, 1981, 「신석기시대」, 『한국사론』 I.
- 조대연, 2014, 「신석기시대 제주도 토기의 남해안지역 유통 양상에 대한 연구」, 『호남고고학보』 43.
- 조대연·김진·정현, 2010,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토기소성 유구 변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호서고고학』 23.

- 최종규, 1977, 「기하문토기의 편년표 작성을 위한 일소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칼라 시노폴리(이성주 역), 2008, 『토기연구법』 (도서출판 고고).
- 하인수, 1997, 「영선동식토기 소론」, 『영남고고학보』 21.
- 하인수, 2006, 『한반도 남부지역 즐문토기연구』 (도서출판 민족문화).
- 하인수, 2011, 「동해안지역 용기문토기의 검토」, 『한국고고학보』 79.
- 하인수, 2012, 「남해안지역 용기문토기의 편년」,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 연구원.
- 하인수, 2013, 「남부지역 즐문토기의 양식과 형식문제」, 『한국신석기연구』 25.
-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 5.
- 한영희, 1983, 「지역적 비교」, 『한국사론』 12.
- 한영희, 1995,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한국고고학회.
- 한흥수, 1936, 「조선석기문화개설」, 『진단학보』 4.
- 황기덕, 1957a, 「함경북도 지방 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1)」, 『문화유산』 No. 1.
- 황기덕, 1957b, 「함경북도 지방 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2)」, 『문화유산』 No. 2.
- 황기덕, 1958, 「조선 서북 지방 원시 토기의 연구」, 『문화유산』 No. 4.
- 황기덕, 1962, 「두만강 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 『문화유산』 No. 3.
- 홍은경, 2008, 「암사동 유적 신석기시대 토기의 시문기법」, 『한국신석기연구』 20.
- 藤田亮策, 1930, 「櫛目文様土器の分布に就きて」, 『靑丘學叢』 2.
- 有光教一,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3.
- 鳥居龍藏, 1917, 「平安南道黃海道古蹟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佐藤達夫, 1963, 「朝鮮有文土器の變遷」, 『考古學雜誌』 48-3.
- 橫山將三郎, 1933,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史前學雜誌』 5-4.
- 橫山將三郎, 1939, 「朝鮮の史前分土器研究」, 『人類學・先史學講座』 第九卷.
- L. L. Sample, 1974,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XI-2.

【Abstract】

Review of Research on the Neolithic Pottery in Korea

Yang Song Hyok

It has been about a hundred years since sites dating from the Neolithic Age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first known. Research on the Neolithic Age, particularly on earthenware, has made a noticeable achievement. In the Peninsula, evaluation of research on the Neolithic Age has been made by numerous researchers.

This paper has divid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on Neolithic pottery, which had been practiced for over 100 hundred years, as follows: 1) Change in the period identification of comb-patterned pottery; 2) Designation of comb-patterned pottery's regional sphere and establishment of a dating system; and 3) Establishment of pottery types and patterns. Thanks to the efforts made by researchers of the two Koreas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in 1945, the period identification of comb-patterned pottery, which were vaguely said to be artifacts dating from the Stone 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came to be arranged as follows: comb-patterned pottery dating from the Neolithic Age and plain pottery dating from the Bronze Age.

In the 1970s and thereafter, the regional sphere of comb-patterned pottery was established amid an increase in the surveys of local historic sites, and the work focused on the detailed dating of artifacts was briskly carried out by region. In the process, the pottery's types and patterns came to be identified and a theoretical basis of pottery research was provided. Based on such results, the temporal and spatial locations of the Neolithic Age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fixed, along with an accurate status of the culture.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efforts made by researchers to shed light on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the Neolithic culture on the Korean Peninsula.

Nonetheless, pottery-related research still has a long way to go. Many studies solely focused on dating research based on a typological method, and the relevant verification procedure lacks logic. We must get over the problems by reinforcing the procedure for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and diversifying the research subjects.

Key words : comb-patterned pottery, period identification, regional sphere, dating of artifacts,
types, patterns

